

남원시 '국가유산산업원' 유치 도전장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 웃칠·목공예 등 전통자원 풍부 이달중 문화재청에 유치 제안서

남원시가 문화재청 산하기관으로 '국가유산산업원(가칭)'에 대한 설립·유치에 나선다. 남원시는 풍부한 지역 내 유·무형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국가유산산업원을 설립·유치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한 '국가유산산업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유산 산업화는 원천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개발 인증, 디자인 개발, 마케팅, 체계적 인력양성 등의 한계 때문에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맞춰 자체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을 통해 문화재청 산하 국가유산산업원 전담 국립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리 및 명분을 확보했다.

국내 문화유산 활용분야 전문가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는 국가차원의 전담 기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남원이 그 최적지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웃칠, 목공예 등 유서 깊은 전통문화자원



최경식(왼쪽 세번째) 남원시장이 '국가유산산업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과 전통문화기술의 원천인 무형문화재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남원에 산업원이 건립될 경우 국가유산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참석자들은 공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에 새로운 체제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시점에 남원시가 선제적으로 문화재청 산하 산업원 설립을 검토한 것은 매우 시기적절했다고 호평했다.

남원시는 이달 중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해 '국가유산산업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결과물을 관련 부서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선 8기 제1의 남원시 미래전략은 '굴뚝 없는 문화산업'으로 산업원 설립이 남원시만의 고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검토돼 최종 남원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원 건립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물론 미래를 이끌어갈 국가유산분야 특화사업을 집중 개발하겠다"며 "남원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베리&바이오식품연구 청년기업 육성 앞장

금군양조와 식품산업 발전 협약

고창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스타기업을 꿈꾸는 창업인들의 희망 길잡이로, 지역 혁신성장의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다.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는 최근 금군양조(김원형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20대 창업 새내기들이 이끄는 금군양조는 설립 3년차 신생기업으로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존지역에서 자란 꽃 추출물을 이용해 술에서 생화 자체의 향을 그대로 구현해냈다.

이는 창업 초기 연구소에서 진행된 리큐르(Liqueur, 혼성주) 레시피 개발의 결과물이다. 연구소 위탁생산시설에서는 장비와 인력지원을 통해 총 2t에 달하는 추출물을 제조·공급해 왔다.

국화, 해당화, 빛꽃, 목련, 아카시아를 활용한 11도 꽃술(사진)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젊은 층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온라인 시장에서 꾸준한 판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주류박람회에도 참가하여 전량 완판이



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김원형 대표는 "지역 내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같은 지자체 연구소가 없었더라면 제품개발에서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소와 꾸준한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희권 연구소장은 "아이디어가 풍부한 관내 예비 또는 초기 청년 창업자들에게 상담과 기술지원으로 기업성장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마켓', 판매 농산물 농약검사 제출 의무화

고창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

고창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 '고창마켓'이 판매 중인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한다.

고창군은 고창마켓 입점 농가가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안전분석실을 통해 46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잔류농약 적정 허용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안전 농산물 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창마켓에서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안전 농산물을 공급



'고창마켓' 메인 배너.

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고창마켓에서 안전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품질보장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종이 없는 행정' 태블릿PC 전부서 배부

남원시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종이 없는 스마트행정'으로의 전환에 나섰다. 남원시는 지난 11일 현안보고회의를 기점으로 태블릿PC를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 도입과 모바일 전자결재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초 태블릿PC 80대를 구입, 전 부서에 배부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스마트 행정업무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각종 회의자료 출력으로 소비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자료 검색까지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종이 없는 회의, 모바일 전자결재 등이 정착되면 불필요한 행정력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며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모든 회의와 보고서 태블릿PC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관련한 다채로운 직무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안전 분석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2년 연속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우수'

영국 식품환경연구회 인증

정읍시가 농산물 안전분석실의 잔류농약 분석 능력 평가에서 2년 연속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정읍시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회(FERA)에서 주관한 '2023년 식품분야 국제숙련도 평가(FAPAS)'에 참여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식품분야 국제 숙련도 평가는 잔류농약, 수질 등 10여개 분야의 분석능력을 검증하는 국제 평가대회로 정확도, 신뢰도가 높아 매년 세계 각국

의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분석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능력 평가에는 세계 각국의 63개 분석기관이 참가했다. 정읍시는 오이 퓨레에 함유된 12개 농약 성분의 분석값을 제출해 Z-score(표준점수) ±2 이하로 모두 만족을 받아 분석 능력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 10~14일 전의 농산물 시료(1~3kg)와 농업인 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증 등)를 지참해 기술센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청년 창업가 3년간 1500만원 지원

10명...21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18~45세) 중,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수료로 역량 갖춘 예비 또는 1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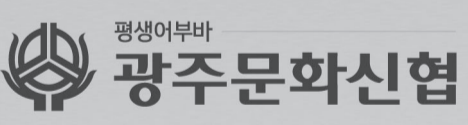
시는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 수료자를 1순위로 선발하고 이외 정부 또는 시 주관 창업교육 및 컨설팅 수료자를 2순위로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총 10명이며, 오는 21일까지 시청 일자리정책과에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모에 선정된 청년창업가에게는 1년 차 사업장 공간구축과 리모델링 비용 등 500만원을 지원한다. 2~3년 차에는 운영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재료비나 홍보비, 임차비 등의 자금을 연 최대 500만원씩 2년간 지원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읍의 많은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 자산규모 1조4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